

- 주요 뉴스: 미 주가(S&P500), 장중 기술적 약세장(bear market) 영역 일시 진입
 - 미 연준 인사, 적극적인 금리인상 주장(볼라드, 연말 3.5%)
 - 유럽중앙은행(ECB), 마이너스 금리 정책(NIRP) 종료 시사
 - 중국 정부, 5년물 대출우대금리(LPR)를 예상보다 큰 폭 인하
- 국제금융시장: 중국 통화완화(상방)와 인플레이션/경기침체 우려(하방) 간 상충

미 주가 보합[+0.01%], 달러화 강세[+0.4%], 금리 하락[-6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은 장중 최대 2.3% 하락하며 약세장 진입 후 반등
유로 Stoxx600은 중국 정책금리 큰 폭 인하의 여파로 0.7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미 연준의 고강도 기축에 대한 우려로 상승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2%, 0.1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둔화 우려로 3일 연속 하락
독일은 ECB 금리인상 가능성 불구 미 금리하락의 여파로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73.4원, +5.1원) 0.4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5/20일	5/19일	전일대비			5/20일	5/19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901.4	3,900.8	0.01%	국채 금리 10y	미국	2.78%	2.84%	-6bp
	유럽	431.10	427.99	0.73%		독일	0.94%	0.95%	-1bp
	중국	3,146.6	3,097.0	1.60%	CDS 5y	한국	48bp	48bp	0bp
	일본	26,739	26,403	1.27%		중국	84bp	86bp	-2bp
	한국	2,639.3	2,592.3	1.81%	위험 지표	EMBI+	421bp	419bp	2bp
환율	달러지수	103.15	102.72	0.41%		VIX	29.43	29.35	0.27%
	유로화	1.0564	1.0588	-0.23%		WTI유	113.23	112.21	0.91%
	엔화	127.88	127.79	-0.07%	원자재	구리	428.1	428.5	-0.09%
	위안화	6.6930	6.7125	0.29%		금	1,846.5	1,841.9	0.25%
	원화	1,268.1	1,277.7	0.76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 주가, 장중 기술적 약세장(bear market) 영역 일시 진입

- 5/20일 장중 S&P500은 고점(1/3일 4,796.56, 사상최고) 대비 -20%에 해당하는 3837.25를 하회. 단, 종가는 전일 수준인 3,901.36에 형성(고점 대비 -18.7%)
- CFRA에 따르면 과거(46년~) 약세장은 13차례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저점 도달까지 1년 이상, 전고점 회복까지 약 2년이 소요되었고 평균 낙폭은 32.7%
- Chase Investment Counsel, SoFi 등은 현재의 미 주가 하락압력은 경제지표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일단락되었다는 신호가 확인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 연준(Fed) 인사, 적극적인 금리인상 주장

- 블러드 연은 총재(세인트루이스), 초기에 더 많이 움직일수록 인플레이션을 더 빨리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정책금리를 3.5%까지 올려야하며, 이 경우 '23~'24년에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정책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

■ 유럽중앙은행(ECB), 마이너스 금리 정책(NIRP) 종료 시사

- 비스코 정책위원(이탈리아)은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, 인플레이션 기대가 2% 부근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7월 무렵부터 정책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으며, 수개월 간의 점진적인 인상 끝에 마이너스 영역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
- 동, ECB의 금리인상 속도는 “+50bp”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

■ 중국 정부, 장기 대출우대금리(LPR)를 예상보다 큰 폭 인하

- 중국인민은행, 주요 정책금리 중 하나인 대출우대금리(LPR) 중 5년물을 4.60% → 4.45%로 15bp 인하(예상은 -5bp). 1년물은 예상(3.65%)과 달리 3.70%로 동결
- 예상에 비해 단기물 인하 폭은 작고 장기물 인하 폭은 컸던 데 대해,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장기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지가 보이는 반면(ING), 1년물은 큰 폭의 인하를 예상하기 어렵다(Capital Economics)고 평가
- 증권감독관리위원회(CSRC), 코로나19 피해 지역 및 부문에 대해 직접금융 확대, 규제 관련 서비스 개선, 對기업 자금 지원 강화 등 자본시장 경로를 통한 지원을 약속

■ 일본 인플레이션율, '15년 이후 처음으로 목표 수준(2%) 상회

- 일본 소비자물가(CPI) 상승률(yoy)은 4월 +1.2% → 5월 +2.5%로 큰 폭 상승하며 예상치(+2.5%) 부합. 원자재 가격 상승, 엔저에 기인. 일본 소비세율 인상(14.4월~)에 따른 일시적 인플레이션 시기를 제외하고 2%를 넘은 것은 '08년 이후 처음
- BOJ 구로다 총재, 일본 물가는 지난 달의 전망보다 빠르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G7 재무장관들에게 통화정책 완화를 지속할 것임을 설명했다고 언급

■ 국제통화기금(IMF), 아시아에 통화긴축의 여파에 대한 주의 촉구

- 오카무라 IMF 부총재,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비전통적 완화 정책들을 거두어들이는 통화긴축 움직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파급 영향을 주의해야 하며, 특히 그 위험이 가장 취약한 국가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

■ 러시아 중앙은행,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예고(6월 1일 발효)

- 러시아의 주요 브로커리지 플랫폼인 Tinkoff Investments는 러시아 중앙은행(CBR)으로부터 받은 서한을 인용해, CBR이 2월 24일부터 시행된 역내 거래소, 장외시장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6월 1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라고 언급(Reuters)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5/20 현지시각 기준)

- 일본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(전년비): +2.5%, 3월(+1.2%), 예상치(+2.5%)
- 영국 4월 소매판매(전월비): +1.4%, 3월(-1.2%), 예상치(-0.3%)
- 유로존 5월 소비자신뢰지수: -21.1, 4월(-22.0), 예상치(-21.5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5/23 현지시각 기준)

- 美 4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, 獨 5월 ifo 기업환경지수 등 경제지표 발표
- 美(바이든)-日(기시다) 정상회담 예정. 바이든의 亞 순방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
- 미 연준(아틀란타 연은 총재,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), ECB(독일 중앙은행 총재,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) 주요 인사들의 경제·통화정책 전망 관련 발언 등에 주목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swlee@kcif.or.kr